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 지역 전나무의 질은 초록빛이 빌레레 컬렉션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블랑팡은 퍼페추얼 캘린더의 뒤를 이어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 콰티엠 콩플레, 콰티엠 문페이스 및 푸르비옹 카루셀 모델을 르 브라쉴스(Le Brassus) 매뉴팩처를 둘러싼 발레 드 주 지역 전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그린 선레이 다이얼로 장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블랑팡은 간결한 모델부터 기술적으로 복잡한 모델에 이르는 컬렉션 모두에 이 지역의 숲을 더 많이 통합하여 역사적 울림을 강화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의 대명사인 빌레레 컬렉션은 라인의 순수함과 무브먼트의 기술적 특징이 특징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계를 조명하는 블랑팡은 이번 컬렉션에서 호화로운 초록빛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입니다. 특징적인 더블 스텝 케이스의 18캐럿 레드 골드와의 대비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기계적 특성과 미적 특성이 미묘하게 결합하여 탁월한 시계가 탄생합니다.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

절제되면서도 효율적인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는 단순히 날짜만 추가하여 필수 시간 표시(시, 분, 초)에 초점을 맞추고 편안한 녹색의 새로운 다이얼에는 사색의 공간을 남겨줍니다. 깔끔한 라인이 돋보이는 이 오토매틱 시계는 빌레레 컬렉션의 DNA를 반영합니다. 외관은 미니멀하며 복잡함은 다이얼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엑스트라플레이트 칼리버 1151(두께 3.37mm)로 구동되는 이 제품은 직경 40mm의 18캐럿 레드 골드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께는 8.70mm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게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빌레레 엑스트라플레이트는 여전히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직렬로 장착된 두 개의 배럴 덕분에 10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빌레레 콰티엠 문페이스

블랑팡의 유명한 문페이스를 장착한 빌레레 콰티엠 문페이스는 서정적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입가의 가짜 점 또는 긴 속눈썹과 함께 닫힌 눈꺼풀까지 여성스러운 모습을 한 문페이스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달은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시계를 달의 주기에 맞춰 고정하고 핸즈 끝부분은 날짜 표시와 초승달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상징하는 다이얼과 케이스는 거의 1캐럿에 달하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빛나며, 새로운 그린 다이얼은 섬세한 햇살을 더해줍니다. 브레이슬릿에서도 차별한 색상도 빠뜨려선 안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이 시계는 밝게 빛납니다. 이 시계는 18캐럿 레드 골드 케이스(33.20mm)에 안전한 913QL.P 자동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으며 진정한 메커니컬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빌레레 콰티엠 콩플레

완전한 캘린더와 문페이스를 조화롭게 결합한 빌레레 콰티엠 콩플레는 기계적인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날짜 원형과 두 개의 전용 창을 통해 날짜, 요일, 월을 표시하는 이 18캐럿 레드 골드 소재의 케이스(40mm)는 시각적 균형과 최적의 가독성을 보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은은한 그린 컬러의 새로운 다이얼과 레드 골드 시곗바늘 및 인덱스의 색상 대비 덕분에 정보를 읽는 것이 용이하며 독특하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복잡한 캘린더 메커니즘을 보호하기 위해, 칼리버 6654는 블랑팡의 특허받은 언더-러그 커렉터를 탑재하여 착용자가 원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캘린더 표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합니다.

빌레레 뚜르비용 카루셀

뚜르비용과 카루셀은 무브먼트 작동 시 중력과 관련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주요 장치입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빌레레 뚜르비용 카루셀은 칼리버 2322를 탑재해 두 개의 레귤레이터(12시 방향의 뚜르비용과 6시 방향의 카루셀)를 하나의 시계에 결합하고 3시 방향의 카운터를 장착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기계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블랑팡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두 개의 레귤레이터의 평균 속도를 시간 표시 장치에 보여주는 차동 장치로 연결된 두 개의 독립적인 회전 케이스가 특징인 이 시계는 동일한 작동을 보장하면서 두 개의 배럴을 동시에 감을 수 있는 외부 와인딩 크라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모델은 정밀함과 7일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하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빌레레 뚜르비용 카루셀은 18캐럿 레드 골드 케이스(44.6mm)와 세련미와 절제미를 더해 주는 섬세한 그린 선레이 다이얼이 결합된 새로운 빛깔로 돌아왔습니다.

빌레레: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과 전문성

블랑팡은 브랜드 컬렉션 중 가장 클래식한 컬렉션에 블랑팡의 탄생지인 빌레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이 모델은 브랜드의 뿌리를 구현하고 있으며 절제된 라인과 순수함이 특징이며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상징적인 더블 스텝 케이스를 갖춘 빌레레 컬렉션 안에는 블랑팡이 무브먼트 제작 분야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 결과가 통합되어 있으며 콰티엠 콩플레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언더-러그 커렉터가 이를 나타냅니다.

문페이스: 블랑팡의 얼굴

쿼츠 위기 이후 블랑팡이 1983년에 다시 선보인 이 서정적인 컴플리케이션은 르 브라쉴스 매뉴팩처의 시그니처로 손꼽히며, 기계식 시계의 뛰어난 전문성과 쿼츠가 복잡한 기계식 시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부흥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제품 중에서 눈에 띄는 블랑팡 문페이스는 빌레레 콰티엠 문페이스와 콰티엠 콩플레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각 시계는 안전한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어 착용자가 하루 중 언제든지 손상 없이 캘린더 표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랑팡, 캘린더의 대가

블랑팡 매뉴팩처의 DNA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캘린더 기능은 블랑팡의 컴플리케이션 제작 노하우를 증명합니다. 퀴즈 위기 이후 다시 부활한 콰티엠 콩플레는 1983년에 캘린더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의 길을 열었습니다. 위클리 캘린더, 날짜 인디케이터, 애뉴얼 캘린더, 퍼페추얼 캘린더를 아우르는 블랑팡의 기술력은 빌레레 이퀘이션 오브 타임과 빌레레 차이나 캘린더라는 극도로 복잡한 세계 최초의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통해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레레, 레이디버드,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의 매뉴팩처 카탈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캘린더 메커니즘은 블랑팡을 캘린더의 대가로 만들어줍니다.

실리콘 혁명

21세기 초 위치메이킹 세계에 진정한 혁명을 불러온 실리콘은 시간 측정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실리콘은 변형 없이 탄성을 유지하며 단단하고 가벼우면서도 부식에 매우 강합니다. 특히 자성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해 시계의 정밀성 유지에 기여하는 탁월한 소재입니다.

헤어스프링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빌레레 모델은 투명한 뒷면을 통해 고유한 무브먼트 구조와 높은 마감 품질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소재 덕분에 뛰어난 크로노미터 성능의 이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중력에 맞서기: 뚜르비옹 대 카루셀

진정한 기계적 위업인 뚜르비옹과 카루셀은 지구 중력이 무브먼트 작동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르 브라쉬스 매뉴팩처는 카루셀을 재건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카루셀을 재정의했습니다. 따라서 카루셀이 뚜르비옹의 대안이 되지만, 이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두 시스템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구성이 서로 다릅니다. 뚜르비옹의 경우 케이지는 단일 기어열을 통해 배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 연결이 멈추면 뚜르비옹도 회전을 멈춥니다. 카루셀은 두 개의 기어 트레인을 통해 배럴에 연결됩니다. 첫 번째 트레인은 탈진기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두 번째 트레인은 케이지의 회전 속도를 제어합니다. 따라서 두 시스템의 차이점은 카루셀이 구성면에서 연구가 더 많이 되었으며 구성 부품이 더욱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레귤레이터의 공존은 진정한 도전이며, 이는 2013년 블랑팡이 시계 제조 역사상 처음으로 채택한 것입니다.